외대학보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23호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발행인 김인철 /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 편집장 정동민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기획] 》 3면
폐강기준

[기획] 》 4면
세민전

[기획] 》 5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문

[문화] 》 7면
예비군훈련 수업 불이익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우리학교와 함께 하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달 9일 국빈방한을 했다. 또한 10일엔 청와대 접견실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11일 우리학교에 방문해 학생들에게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어떤 말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 그 날의 현장으로 가보자.

▶5면에서 계속

글 이은지 기자 97eun_g@hufs.ac.kr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는 홍석현 이사장

한반도 평화를 향한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이사장 강연 열려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홍석현 이사장

▲패널대담을 하고 있는 홍석현 이사장과 교수진

지난달 12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이사장(이하 홍석현 이사장)은 우리학교 국제관 애경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년 오디세이' 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홍석현 이사장은 △핵 개발이 갖는 의미△핵이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한반도가 비핵화를 이뤄야 하는 이유△비핵화 평화 시대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을 청중에게 전했다. 홍석현 이사장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을 오디세우스처럼 밟아 나가야 한다"며 "현재 젊은 세대가 주역이 돼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강연이 끝난 뒤엔 △최정화 통번역대학원 교수△윤덕민 석좌교수△황재호 국제학부 교수가 홍석현 이사장의 강연 내용에 대한 패널 대담을 진행했다. 이후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학생들의 질의응답이 20분가량 이어졌다. 이어 홍석현 이사장의 강연에 대해 송수민(서양어 · 프랑스어18) 씨는 "기존 언론에서는 한반도 핵 문제 도래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게 돼서 좋다"며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우리 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처럼 특별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홍석현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으며, 중앙홀딩스 회장직과 한국기원 총재직을 겸하고 있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이번 정기총회도 성황리에 마무리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글로벌캠퍼스 노천극장

지난달 18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노천극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최의 정기총회(이하 정총)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정총은 정족수 704명을 넘긴 총 756명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개회됐다. 총회는 임태성(자연과학 · 수학 13) 비대위장과 고경화(국제지역 · 아프리카 13) 부비대위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 39대 청춘예찬 총학생회 비상대책 위원회 보고△논의 및 의결 안건△기타 토의 · 안건 순으로 이어졌다.

제39대 청춘예찬 총학생회 비대위 보고에선 △2018년도 왕산체전 진행 완료 보고△총사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준 및 기숙사 학칙개정위원회 발족△2018년 10대 교육환경개선안 이행 촉구 실무진 간담회△졸업준비위원회 해소△2018년 2학기 중앙집행위원장 인준△학사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요구△학생회칙 개정 진행△축제 일정 공고를 발표했다. 이어 다음 달 시행예정인 2019년도 총학생회장단 선거 계획을 밝혔고 교내 성폭력 근절 운동 진행사항을 발표했다.

논의 및 의결 안건에선 10대 교육환경개선안 이행률 보고의 상반기 요구안인 △학생 의사 적극 반영△공정한 성적평가 및 확실한 교육권에 대한 보장△열악한 통학 환경에 대한 개선△공학관 및 자연과학관 리모델링 촉구와 교내 낙후 시설 개선△스마트도서관 건립 촉구와 신규 도서 확충△교내 건물 학생증 출입 시스템 확충△승차장 휴게실 개방 및 전면 개편△나라사랑 원격강좌 개설△판교 테크노밸리 MOU체결을 통한 교육 인프라 확충△학교 부지 권역 내 · 외부의 치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비대위는 이 중에서 1500-2 버스의 주말 교내진입 성공과 외부 인원의 무분별한 도서관 유입 방지를 위한 게이트 설치를 완료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수민(국제지역 · 한국 17)씨는 "정기총회를 통해 비대위가 학생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학교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라며 총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윤아영 기자 97yyuna0@hufs.ac.kr

2018대동제 'HUFS:pirit' 순간포착

▲ 지난달 18일, 정기총회가 끝난 후 축제 공연이 진행됐다.

▲ 이번 축제의 초대가수 마마무가 무대를 진행하고 있다.

▲ 많은 학생들에게 웃음을 줬던 슬픔이(슬프미)분장을 한 학생

▲한국학과 타로부스에서 타로를 보는 학생들

▲오믈렛이랑 마카롱 드셔보세요! 국제금융학과 학생들이 학과부스에서 오믈렛과 마카롱을 팔고 있다.

▲축제에 놀러온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프랑스학과 학생들

여학생공결제 전산화 인권침해 논란, 어떻게 됐나

우리학교는 지난해 2학기부터 생리공결제를 도입했다. 이는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에 맞춰 수기로 작성한 유고 결석신청서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게재한 생리공결제 개편안에 의하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결 처리할 수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양식이 생성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출력해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면 공결 신청이 완료된다. 총학은 생리공결제 전산화를 통해 "양식을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으며 "생리 기간 외 생리공결제를 사용하는 악용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생리 주기까지 요구하며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생리공결제 전산화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개편안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생리 주기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학교에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재학생 A씨는 "생리 주기까지 학교에 알리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생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비판 의견도 있었다. 재학생 B씨는 "생리 주기는 호르몬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며 "주기 입력이 무의미하고 오히려 더 번거롭다"고 덧붙였다. 생리공결제 전산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총학생회는 생리공결제가 전산화되면 기존의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리 주기를 일일이 전산상에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편리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른 질병 유고계도 있으나 생리공결제만 전산화하겠다고 했던 이유 역시 지적의 대상이 됐다.

해당 논란 이후 실시했던 인터뷰에 따르면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해당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관련 인식이 미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생리공결제 개편 추진 배경에 대해 생리공결제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결과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처럼 양식을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원클릭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을 고취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논란은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상 생긴 오류라고 덧붙였다. 총학은 학생이 공결 처리할 날짜를 선택하면 그에 대한 일주일 치 수업이 뜨는 시스템이라며 정확한 생리 '주기'를 입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 시행 목적은 오남용 방지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학에 따르면 게시글에 '오남용 방지'라고 기재한 이유는 기존 본부 설문조사 당시 기존 생리공결제 오남용에 대한 반발 여론이 많아 이번 개편안이 도입될 경우 오남용 방지라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개편안은 공청회 및 담론장을 형성하는 등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결과적으로는 유보됐다. 정식 시행 시에는 생리공결제뿐 아니라 다른 유고계 모두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생리공결제를 '공결'이 아닌 '병결'로 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 14일 총학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과문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생리공결제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학교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고려대학교는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생리공결제를 도입했다. 또한 생리공결제 역시 유고결석계의 일환으로 인정하며 생리 공결을 다른 질병 결석과 동일시했다. 공결 신청은 학생이 전산상에서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담당 교수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후 출석 인정 여부는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 역시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생리공결제를 시행했다. 공결 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일을 입력하면 과목별로 자동으로 양식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를 출력해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경희대의 경우 공결 신청만 하면 담당 교수의 재량과 관계없이 출석 처리된다. 이 같은 사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될 우리학교 '생리공결제'의 향방이 주목된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19-1학기부터 우수입학 장학금 기준 변경

지난달 7일 우리학교 학생지원팀이 우수입학 장학금의 기준 변경을 공지했다. 현행 우수입학 장학금 계속수혜기준은 18학년도 2학기까진 직전 정규학기 취득학점 14학점 이상, 평점 평균 3.2 이상이다. 하지만 학생지원팀은 해당 기준이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우수입학성적 장학금이라는 명칭에 3.2점이라는 점수는 절대적으로도 낮으므로 장학금 기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19학년도 1학기부터 우수입학 장학금 계속수혜기준은 직전 정규학기 취득학점 14학점 이상, 평점평균 3.5 이상으로 변경된다. 학생지원팀은 또한 성적인상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 우수입학 장학금의 예산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학금 기준 변경과 관련해 몇몇 재학생들은 "이번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학교의 입맛에 맞게 장학금 기준을 바꿨다"며 속상함을 드러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장학금 기준이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학교 측에서 개인적으로 문자나 우리학교 공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메시지를 통해 공지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은지 기자 97eun_g@hufs.ac.kr

김인경 선수 학점 특혜 논란... 지난달 검찰 조사 무혐의 결과 나와

8월 10일 김인경 선수 학점 특혜 관련 교수들의 검찰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3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김인경 미국여자프로골프 선수△김인철 총장△박철 전 총장△관련 교수들을 각각 △사기 및 업무 방해△업무상 배임△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인경 선수가 학점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인철 총장 등이 높은 학점을 주거나 담당 교수·강사를 질책하고 회유해 학점을 주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8월 8월에 발표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점 특혜와 관련된 교수 35명 중 4명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나머지 31명은 '혐의 없음' 결과가 나와 수사가 종결됐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내가 듣던 수업이 사라졌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났다. 모든 강의에는 고정된 출석부가 나왔고 인원수가 적은 강의는 폐강됐다. 하지만 9명인데도 폐강된 강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강의는 6명인데도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과와 수업에 따라 달라지는 폐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달 15일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에 폐강 관련 불편을 겪었다는 학생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학생은 폐강으로 인해 이미 시간표가 틀어져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수업으로 대체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폐강의 정확한 기준과 학생과 학교 측의 입장을 알아보자.

◆폐강 기준과 처리과정

현재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는 모두 동일한 폐강기준을 적용한다. 우리학교는 강의를 1강좌만 개설하는 단일 강의와 한 강좌로 여러 개의 반이 개설되는 분반 강의로 분류한다. 이때 둘의 폐강 기준은 다르다. 교양의 경우 △교양 외국어△체육△실기 등과 같은 소수 강의와 일반강의로 분류된다. 단일교양 강의 중 소수교양은 10명 이하, 일반교양은 15명 이하의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 폐강이 결정된다. 분반강의인 경우 소수교양은 15명, 일반교양은 20명 이하의 수강생을 기준으로 폐강 결정을 내린다.

전공과목은 학과 입학정원에 따른 폐강 기준을 적용받는다. 전공과목 또한 교양 과목과 마찬가지로 단일 강의와 분반 강의인지에 따라 폐강기준이 달라진다. 1강좌 개설 과목일 경우 △20명 이하가 정원인 과는 4명 이하△21~30명인 과는 5명 이하△31~50명인 과는 8명 이하△51명 이상인 과는 10명 이하의 수강생이 신청하면 폐강된다. 또한 분반강의는 항상 10명 이하가 폐강 기준이다.

폐강이 결정되면 학생들은 학교에 문의해 대체강의 수강신청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졸업예정자 중 해당 수업을 듣지 못해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측에서 편의를 봐주기도 한다. 일례로 동시간대에 같은 강의가 있으면 그 강의로 옮길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해당 강의를 개설한다. 지난 학기의 경우 200개의 폐강 예정 강의 중 60개가 위와 같은 이유로 개설됐다.

만일 부득이하게 여석이 없는 강좌로 폐강 대체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에 담당교수 및 개설학과(부, 전공)의 확인을 받으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교양 교과목은 이 경우에서 제외된다.

<표-교양>

개설영역	구분	1강좌 개설	분반 개설	비고
교양	①일반교양	15명 이하	20명 이하	교양대학장의 개설 요청이 있을 경우 개설 (단 교양 영어 및 실용외국어는 제외)
	②교양외국어/체육실기	10명 이하	15명 이하	

※폐강 대상 강좌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개설 유지를 고려할 수 있음.
① 1강좌 개설 과목으로 졸업예정자의 학점취득에 필요한, 대체 불가 강좌
② 전임교원 담당 강좌 (폐강기준 50% 미달 시 폐강 처리)

<표-전공>

개설영역	구분	1강좌 개설	분반 개설	비고
전공/이중전공	① 입학정원 21명 이하	4명 이하	10명 이하	한 과목이 1전공과 이중전공 영역에 동시 개설될 경우 분반으로 처리함
	② 입학정원 22~30명	5명 이하		
	③ 입학정원 31~50명	8명 이하		
	④ 입학정원 51명 이상	10명 이하		
부전공, 융합전공, 교직		5명 이하		
단과대학 공통영역		10명 이하		

※폐강 대상 강좌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개설 유지를 고려할 수 있음.
① 1강좌 개설 과목으로 졸업예정자의 학점취득에 필요한, 대체 불가 강좌
② 전임교원 담당 강좌 (폐강기준 50% 미달 시 폐강 처리)
(출처-학사종합지원센터)

◆학생들의 입장

상당수의 학생들이 폐강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폐강이후 새로운 강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폐강 사실이 너무 늦게 전달되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지난 학기 전공과목이 폐강된 김제연(통번역 · 영어 17) 씨는 폐강 소식을 듣고 이를 대체할 강의를 찾아봤지만 모두 시간대가 안 맞았다. 당시 그 수업을 수강신청한 학생들은 8명이었으며 정원이 120명인 학과의 폐강기준인 10명에 미치지 못해 폐강됐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학교가 조금만 일찍 폐강여부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양과목이 폐강된 한가은(통번역 · 스페인 17) 씨 또한 폐강 사실에 불편을 토로했다. 폐강 당시 그 과목의 인원수는 5명이었다. 한씨는 폐강 이후 새로운 강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폐강이 되면 학생들은 학생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에 가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원하는 과목으로 강의 교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잔여석이 있는 과목에 한정돼 있다. 이에 한씨는 "안내를 받지 못해 교체할 과목에 잔여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없다"며 "학교에서 폐강강의 수강생들에게 따로 폐강 공지를 해주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한씨는 이러한 점 때문에 몇 학생들은 교체를 희망하는 강의 마다 인원이 꽉차있어서 여러 번 서류를 다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폐강으로 인해 듣고 싶었던 강의를 듣지 못해서 안타깝다"며 "수업이 시작 된지도 벌써 2주가 지났기에 교체과목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말했다.

◆폐강의 원인

폐강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한정된 강의실의 개수와 수강생 수에 있다. 학종지는 우리학교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학교들보다 개설되는 강좌수가 1.5~2배정도 많다고 했다. 우리학교는 연세대학교에 비해 학생 수는 533명 적지만 강의 수는 2899개 더 많이 개설된다. 또한 고려대학교에 비해 학생 수는 1881명 적지만 개설되는 강의 수는 2962개가 더 많다. 이에 학종지는 "강의실이 부족한데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정요일 (화, 수, 목)과 시간(3~8교시)에 쏠림 현상이 심하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강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강의 개설 기준을 정하고 일정한 정원이 차지 않을 시에는 폐강을 결정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학교 폐강 강좌수는 한 학기에 각 캠퍼스 별로 100여개이며 폐강률은 4%내외라고 한다..

대학교	학생 정원	재학생	전임 교원수	총 강좌수	강좌당 학생수
경희대학교	19679	25197	1096	7840	37.45
한국외대	13508	17042	565	9371	23.85
연세대학교	14041	19114	1498	6472	38.20
고려대학교	15389	20990	1138	6409	40.14
한양대학교	11703	15457	891	6709	28.81

(출처-학사종합지원센터)

◆학교 측의 입장

서울 캠퍼스 학종지 이원재 팀장은 "학교는 항상 적절한 강의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캠퍼스 상황 상 폐강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폐강에 관해서는 학사공지와 학교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니 학생들이 이런 공지를 잘 숙지하고 있으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폐강공지를 하기 전 학생들이 미리 강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2주라는 시간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캠퍼스 학종지 권성배 팀장과 정재원 대리 또한 서울 캠퍼스와 비슷한 의견이다. "폐강공고는 개강 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항상 둘째 주 수요일에 학사공지사항에 공지된다. 따라서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홈페이지를 찾아서 알아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학종지는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함과 동시에 폐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석사과정]
한국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인도아세안학과, 중동아프리카학과, 러시아CIS학과
유럽연합학과, 미국캐나다학과, 중남미학과, 국제개발학과, 국제학과, 유엔평화학과
[박사과정]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국제관계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 특징
-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 신입생 입학장학금(전원 지급, 등록금 20~30%내외)
- 학과별 추천장학금(학기별 선발, 등록금전액)
- 본교출신 조교 장학금 제도(학기별 선발)
- 성적 장학금(재학생 대다수 수혜)
- 외부기관 장학금(POSCO, KIEP-GPAS 등 다수)
- 3+1제도(재학중 1학기 외국대학 수학 후 학점인정)

* 석사과정 비논문트랙 운영(일부학과 제외)

◆ 원서접수

구 분	1차모집	2차모집
원서접수	10.1(월)~10.11(목)	11.12(월)~11.22(목)
면접일	10.27(토)	12.8(토)

◆ 문의처
TEL : 02)2173-2448, 2449
Website : http://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2018 세계민속문화축전

▲**테파짜오잉**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학회 '테파짜오잉'의 공연이다. 테파짜오잉은 태국 북동부 '이싼' 지방의 전통 무용 중 하나인 '쓰엉끄라띱'을 선보였다.

▲**트윔보** 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부 학회 '트윔보'의 공연이다. 트윔보는 〈Afro House Dance&African Caribbean〉과 〈Zambezi Express〉에 맞춰 아프리카의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

▲**나빌레라** 국제지역대학 한국학과 학회 '나빌레라'의 공연이다. 나빌레라는 〈한국기본민속무용곡 부채춤곡의 서곡〉과 〈퓨전국악그룹 the 林의 '눈의 여왕〉에 맞춰 직접 구성 및 기획한 무대를 선보였다.

▲**오아시스** 통번역대학 아랍어통번역학과 학회 '오아시스'의 공연이다. 오아시스는 아랍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낸시 아람즈의 노래 〈Eftah albek〉와 〈mogabah〉에 맞춰 여자들은 벨리 댄스를 남자들은 탄누라를 선보였다.

▲**깔리나** 동유럽학대학 우크라이나어과 학회 '깔리나'의 공연이다. 깔리나는 흥겹고 빠른 템포의 음악 반주에 맞춰 카자크 특유의 헐렁한 바지를 입고 곡예 같은 점프와 스핀을 하는 즉흥적인 안무가 특징이다.

▲**샨다르** 국제지역대학 인도학과 학회 '샨다르'의 공연이다. 샨다르는 영화 '람 릴라(Ram-Leela)'에 나오는 〈Nagada sang dhol〉의 화려한 춤을 선보였다.

▲**마주르카** 동유럽학대학 폴란드어과 학회 '마주르카'의 공연이다. 마주르카는 △Posz ł a Karolinka do Gogolina△Krakowiak△Polka를 선보이며 여러 템포의 춤과 노래를 모두 소화했다.

▲**폴카** 동유럽학대학 체코·슬로바키아어과 학회 '폴카'의 공연이다. 폴카는 <hů a hů>에 맞춰 힘차고 활발한 동작으로 체코 전통 춤의 경쾌한 특징을 살려 재현했다.

▲**로스 호베네스**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회 '로스 호베네스'의 공연이다. △Carnaval△Quièn será△Labamba에 맞춰 남미 특유의 흥을 표현했다.

윤아영 기자 97yyuna0@hufs.ac.kr

환영합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님!

Selamat datang di kampus HUFS, Presiden Joko widodo!

지난달 11일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현 대통령은 우리학교 서울 캠퍼스 애경홀에 방문해 우리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 날 특강은 고영훈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이하 마인어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약 230명의 학생과 20명의 교수진이 참석해 조코위 대통령을 환영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PPT 자료를 사용해 'SPECIAL LECTURE'를 진행했다.

▲고영훈 교수의 사회를 듣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 부부 · 학생 · 교수진

◆'조코위' 그는 누구인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으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성과 이름을 구분 짓지 않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통상적으로 짧게 줄여 '조코위' 라고 부른다.

1998년까지 인도네시아엔 수하르토 장군의 독재 정권이 계속 됐고 그 이후에도 군정권은 지속됐다.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은 군 경력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군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가 아닌 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택했다. 국가의 정상들은 대부분 어딜 가나 보호를 받고 격식 차린 모습만 보여주지만 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서 단독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해 인도네시아의 서민들과 같은 친근함을 보여줬다. 이는 '서민 대통령' 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애경홀로 들어오는 조코위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의 특강

특강은 고영훈 마인어과 교수의 사회로 막을 열었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은 'SPECIAL LECTURE' 라는 제목이 실려 있는 PPT 자료를 사용해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우리학교에서 많은 정상들이 연설을 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토바이를 탔던 정상은 본인뿐이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조코위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 을 강조했다. 먼저 그는 우리가 '스스로 차분해질 수 있어야 한다' 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험에서 오는 혁신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언급하면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당부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우리가 종종 여린 마음에 현실 앞에서 작아지기 쉽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학생들의 질의응답

Q1. 최태수(아시아 · 마인어 14) 씨: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1. 조코위 대통령: 정직과 용기, 노력이 중요하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직' 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선택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뒤따르므로,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를 낼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 이 중요하다.

Q2–1. 박주연(통번역 · 마인어 16) 씨: 인도네시아는 △다민족△다언어△다종교 국가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안정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끄는 비결은 무엇인가?

A2–1. 조코위 대통령: 먼저, 우리가 조화롭게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신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항상 국민들에게 '비록 모두 다를지라도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합시다' 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에 존재하는 다양성이다.

Q2–2. 박주연(통번역 · 마인어 16) 씨: 또한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코리아팀으로 공동입장하고 한 팀으로 출전해 성과를 낸 남과 북의 화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2–2. 조코위 대통령: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남한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북한의 리용남 내각부 총리가 함께 와서 정말 기뻤다. 이것은 남 · 북한의 평화가 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현실이 되길 소망하며 세계 평화의 에너지가 한반도에서 출발하길 바란다.

◆조코위 대통령과의 아쉬운 헤어짐

조코위 대통령의 특강과 질의응답이 마무리된 후 조코위 대통령을 위한 김인철 총장의 선물 증정식이 진행됐다. 김인철 총장은 오토바이를 탄 조코위 대통령을 언급하며 그에게 양복보다 점퍼가 필요할 거 같다며 우리학교 점퍼를 선물했다. 점퍼의 팔 부분에는 인도네시아 국기인 '상 메라 뿌띠(Sang Merah Putih)' 가 그려져 있고, 손목 부분에는 'JOKO WIDODO'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또한 김인철 총장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루왁 커피를 전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학생들과 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고 학생들과 교수진들의 배웅 아래 행사는 마무리됐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인철 총장과 조코위 대통령

◆학생들의 인터뷰

조코위 대통령의 특강에 참석한 이동석(통번역 · 마인어 18) 씨는 "처음엔 조코위 대통령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만의 근엄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주연(통번역 · 마인어 16) 씨는 "조코위 대통령이 질문에 3분이 넘도록 성의껏 답변을 해줬다"며 "짧은 순간이지만 그와의 소통에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수(아시아 · 마인어 14) 씨는 "연설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관계가 앞으로도 발전하리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이번 연설을 듣기 위해 자리를 가득 채운 학생들이 인도네시아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며 "인도네시아어 전공생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관심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아쉬운 점을 느낀 학생들도 있었다. 정윤환(통번역 · 마인어 18) 씨는 "초과인원은 통역을 듣지 못하는 구조였는데 이 점이 특강을 이해하는데 불편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하지만 잘 이해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시현(통번역 · 마인어 18) 씨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을 가까운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다만 한 나라의 정상이 오는 큰 행사인데도 △인원대비 장소 선정 △좌석배치△동선 등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은지 기자 97eun_g@hufs.ac.kr

▲조코위 대통령 부부와 교수진

지구촌을 읽다

악화일로의 양안관계와 대만문제

공유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최근 양안관계(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2016년 민진당(民進黨)의 차이잉원(蔡英文)정권이 들어선 이래 중국은 대만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에 살바도르가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의 수교 국가는 17개 국으로 줄었고△외국 항공사에 대만을 중국의 카테고리 안에 표기하도록 명시했고△내년에 타이중에서 거행하기로 결정됐던 동아시아청년체육대회를 취소하게 하는 등 민간분야에서의 압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대만에 대하여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나? 양안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대만 국내문제, 국제정세의 변화 등의 각도에서 풀어보겠다.

필자는 양안관계의 변수가 주로 대만 국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냉전시기의 양안관계는 무력대치시기로서 이 때 양안관계에는 커다란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70년대 탈냉전의 조류 속에 대만이 유엔을 반강제적으로 탈퇴하고 그 자리를 중국이 대체하면서 양안관계가 급격히 변화했다.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 중국은 대만에 대해 '일국양제', 즉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만은 3불정책(중국과는 어떠한 △접촉도△협상도△타협도 없다)의 천명으로 중국의 공세를 외면했다.

그러다가 80년대 말 대만은 더 이상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친지방문을 허용했고 이를 시작으로 민간교류를 시작했다. 90년대부터는 대만 기업의 중국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사회, 경제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해졌기에 양안은 이를 처리할 반관반민 성격의 기구를 각각 만들었다. 이후 1992년에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정치회담을 가졌다. 이렇듯 90년대에는 양안간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지는 시기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90년대는 또한 양안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원인을 낳은 시기기도 하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대만의 민주화 열풍은 1996년 총통 직선제의 실시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화 열풍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으로 연결되면서 중국과의 정치적인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집권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민진당이 집권하자 중국은 정치적인 회담을 일체 중단했고 '반국가분열법' 의 반포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 '어떠한 대만 독립의 준동도 저지' 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상할 수 있다는 당근책도 함께 제시하며 민진당을 압박했다. 2008년 마잉지우(馬英九)의 국민당이 재집권하면서 1992년의 정치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중국은 대만에 대해 우호적으로 화답했다. 대만과 중국이 합의했던 '하나의 중국' 에 대한 개념은 주체가 다르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만이 하나의 중국이고, 대만은 '하나의 중국' 이 중화민국도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중국은 대만에 대하여 외교휴전을 선포하고 ECFA를 체결하는 등의 우호적인 정책을 전개했다.

하지만 2016년 민진당이 재집권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에는 대만의 국회마저도 민진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민진당의 완전한 집권이 이뤄졌고, 민진당은 이를 바탕으로 탈중국화(혹은 대만화)의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대만이 개헌을 통한 독립선언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들었지만 역사 교과서에서 중국을 세계사로 분류하고 정명운동을 통해 중화민국보다는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 민진당의 1차 집권 시기에 개정된 교과서로 공부한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이들이 대만 독립적인 성향을 띠자 사회 분위기도 탈중국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에 미중관계의 악화도 양안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변수다. 중국은 줄곧 대만 문제를 국내 문제로 규정하고 외세의 개입을 불허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만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내세우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그 카드로서 대만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대만에 있는 미국대표부에 미군을 배치했고, 대만 여행법을 통해 미국 관리들이 대만에 공무여행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최근에 대만과 단교한 살바도르 등의 나라에게 이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저촉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대만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중국에 대하여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변화와 미국의 도전에 대해 중국은 초지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의 국제사회에서의 공간을 압박하는 등의 강경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만에 대한 특혜 31개 항목' 을 발표해 대만의 국민들이 중국에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줬다. 이러한 정책은 대만 국민과 지방 정부에 대한 소프트공세를 통하여 민진당 정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현재 민진당 정부는 정권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독립 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관계도 당분간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양안관계도 더불어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말에 있을 대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대만 내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다. 또 미중관계는 항상 변수가 작용하므로 양안관계 흐름의 변화도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HUFS 비정상회담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창춘'을 아시나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한국인들도 즐겨 찾는 관광 도시들이 많다. 그러나 중국이 넓은 대륙인 만큼 우리가 몰랐던 도시들도 있다. 그 도시 중 하나인 '창춘'을 우리학교 학생인 맥스 리앙(서양어 · 스페인어 · 17)와 함께 알아보자.

"제 이름은 맥스고 중국에서 왔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우리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제 고향인 창춘은 현재 길림성의 성도예요. 예전에는 '신징(新京)' 이라는 이름으로 만주국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창춘이라는 단어는 '봄이 길다' 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 봄은 무척 짧아요.(웃음) 창춘은 길림성 안에서도 연변 옆에 있고 △시 직할구 6개 △현급 시 3개 △한 개의 현을 관할하고 있어요.

창춘은 △지하철 △자동차 △영화 제작 산업으로 유명해요. 2007년에는 동계 아시안 게임도 개최했어요. 특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창춘 영화 박물관이에요. 창춘이 중국 영화 산업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만큼, 이곳에 가면 중국 대표 영화들의 주요 장면과 줄거리, 그리고 중국이 영화를 만들게 되기까지의 시대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기록만 해 두지 않고 실제 세트장과 소품을 함께 전시해서 이해하기 쉽고 집중할 수 있어요.

또한 '장영세기성' 역시 꼭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예요. 장영세기성은 창춘의 디즈니랜드라고 불리는 테마파크예요. 위에 소개했던 영화 박물관이랑 비슷하긴 한데 놀이공원처럼 꾸며 놓은 곳이에요. 이곳은 중국 최초로 영화와 관광을 합쳐서 만든 공원이에요. 관람 구역마다 다른 공연을 볼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양하고 특이한 조형물도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고 특별한 사진도 남길 수 있어요.

중국에는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들이 정말 많은데, 창춘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은 '훠궈' 예요. 물론 훠궈가 창춘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이긴 하지만 창춘에서 먹으면 더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웃음)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중국, 그리고 창춘 얘기를 많은 학생이 보고, 중국 관광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웃음)"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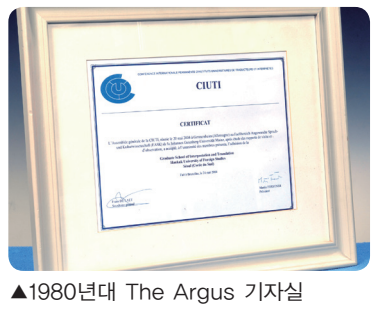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1979년 9월 1일, 아시아 최초 통번역대학원이 설립되다..

▲한국외대 동시통역대학원 개원 및 입학식(1979.09.01)

▲통역대학원(現 국제관) 기공식(1995.12.04)

▲통역번역대학원 CIUTI(세계통역번역대학원(교)협회) 정회원교 가입 기념식(2004.06.11)



▲1980년대 The Argus 기자실

1960~70년대 수출 중심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우리나라는 세계와의 활발한 무역 교류와 국제 행사 개최에 필수 요원인 통번역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됐다. 하지만 당시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유럽과 미국 등 극소수 국가에 한정됐었고 이들 기관에서 국제무대의 변방국이던 우리나라의 언어 통역 인력을 양성할리는 만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최초 외국어 전문 고등 교육기관인 우리학교는 개교 이래 25년 동안 쌓아 온 외국어 교육 · 연구 노하우를 활용해 1979년 9월 '국제적 안목과 전문가적 소양을 겸비한 국제회의 통역사 및 전문 번역가 양성' 을 목표로 동시통역대학원(現 통번역대학원)을 개설했다. 이와 함께 △통번역 분야의 학술이론 정립△교육방법론의 개발△타 학문과의 협력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양성도 목표로 제시했다.

당시 통번역 과정으로 설치된 언어는 △영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아랍어△말레이 · 인도네시아어(협동과정) 등 9개였는데 이러한 대학원 과정의 설치는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였다. 설립 직후부터 고도의 전문성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명성을 확보한 덕분에 일본과 중국 등 많은 아시아 유학생들이 지원했다. 1996학년도 입시에서는 세계 70개 대학의 유학생들이 입학 원서를 내기도 했다.

대학원 본 과정의 성장과 더불어 1984년 통역대학원 내 통역 · 번역센터의 설립, 1985년 '통역대학원논문집' 발간 등을 통해 국내 · 외 통번역 학계의 학술 활동과 새로운 이론 개발을 선도하기도 했다. 1997년 12월엔 명칭을 통역 · 번역대학원으로 개칭했고 1998년엔 전문대학원 승격을 승인받아 박사과정도 개설했다. 2004년엔 통번역학 교육 기관으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시아 지역 최초로 세계통역번역대학원협회(CIUTI, Conférence Internationale Permanente d'Instituts Universitaires de Traducteurs et Interprètes)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통번역대학원 출신 통역사와 교수들은 다양한 국제 행사에서 활약하면서 통번역대학원의 명성을 드높였다. 설립 직후인 1981년 9월엔 서울에서 개최된 WBC 총회에서 동시통역대학원생 12명이 능숙한 솜씨로 5개 언어(△한국어△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일본어 등) 통역을 진행해 국내 · 외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1988년 서울올림픽△1993년 대전엑스포△2000년 ASEM 정상회담△2002년 월드컵△G20 정상회의 등 국가적인 행사에서 크게 활약했다. 그 밖에도 각 언어별로 크고 작은 국제행사의 동시통역은 물론이고 국제회의 및 스포츠 · 예술 행사 조직위원회의 △수석통역사△통역조정관△통역담당관△통역자문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통역의 기술적 발전△노하우의 축적△우리나라의 국제행사 유치 능력은 크게 성장했으며 이런 성장엔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크게 작용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회의 컨벤션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3~1967년에 협회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행사가 단 4건만 열렸다. 하지만 2008~2012년에는 1,103회가 개최되는 등 40여 년 사이에 무려 276배가 늘어났다. 국제행사는 국제관계와 교역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국력의 증진과 비례관계에 있다. 이러한 발전의 중심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역과 번역으로 크게 활약한 우리학교 재학생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예비군 훈련 받고, 수업 불이익 받고

우리학교 학생예비군들은 2학기에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1차 보충 훈련을 앞두고 있다. 군대를 전역한 남학생들은 필수로 참여해야하는 훈련이지만,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석으로 학점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1점, 2점, 심하게는 0.1점으로 성적이 갈리는 우리학교에서 1주 수업을 배제하고 똑같이 경쟁을 시키는 건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등의 예비군 훈련으로 받는 불만의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또한 다른 학교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 예비군 훈련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예비군이란 전시, 사변 등의 유사시를 대비해 현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는 예비 병력을 말한다. 예비군 훈련은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 출·퇴근 4일(32시간)을 이수해야한다. 하지만 정규 학기에 재학(휴학·추가학기 제외) 중인 자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예비군으로 분류돼 1년에 8시간, 하루 1회 향방기본훈련만 받는다.

2학기 학생예비군 훈련은 △9월 27일△10월 10일△10월 11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훈련 일자는 변경이 불가하며 훈련일자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개별적으로 전국단위훈련(예비군 홈페이지)을 신청한 후 참가해야한다. 이처럼 시·공간상의 한계로 예비군 훈련 당일에 수업이나 행사가 있어도 해당 학생들은 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예비군법 제10조의 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5조 제8항은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학생에게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 이를 위반했을 시의 처벌을 명시한 법조항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 문제가 된다.

◆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 수업 불이익

현재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당일 유고결석은 인정된다. 그러나 취재 결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참여에서의 피해△학교 행사 참여 기회 박탈△예비군 당일 강의의 매매 등의 학업상 불이익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커뮤니티사이트 에브리타임에서는 "예비군으로 인해 수업에 빠졌다"며 "수업 내용을 보여주면 사례하겠다"는 글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한 제보자는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예비군 훈련 때문에 빠지게 됐다"며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밝혔다.

학생예비군 훈련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가장 큰 불만을 느끼는 부분은 수업 참여에서의 피해다. 이찬희(아시아·마인어 14) 씨는 "△교수님의 자체휴강△추석연휴로 인한 휴강△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휴강으로 중간고사 전까지 강의를 3회만 들을 수 있어 한 강의의 비중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이익에 대해 강의 녹화 등의 대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보상은 바라지 않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준(사회·미디어 15) 씨 또한 "3학점 수업이 이틀로 나눠져 있는 타 학교와 달리 우리학교의 경우 하루 수업을 빠지면 큰 손해"라며 "당일 수업에 대한 보충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기범(상경·경제 14) 씨는 "경제학과는 남자 성비가 높아 예비군 훈련 일에 휴강을 하고 다른 날에 보충수업을 하는 대안이 마련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예비군 제도에는 충분히 피해를 입는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시험기간이 아닌 달에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거나 예비군 훈련 일정을 학사일정에 미리 포함하는 등의 대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기관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학생들의 수업 불이익에 대해 예비군 연대 김범진 과장은 "학생의 불이익은 이해하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이익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들에게는 최대한 수업을 피한 날짜로 훈련 날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사종합지원센터 이원재 차장은 "학교 측은 예비군 날짜 선택의 권한이 없다"며 "보강이나 수업 진행은 교수의 재량"이라면서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 대해 얘기했다. 총학생회 또한 수업 불이익에 대해 공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총학생회 푸름의 공약을 보면 <1.정책분야>의 <1.5 예비 공결인정 공문 발송에 대한 공약>은 있지만 예비군의 수업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중헌(서양어·독일어 16) 총학생회장은 "현재 불이익에 대한 대책으로 교수들에게 예비군 훈련 날짜에는 중요한 시험을 피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총학생회 측의 대처에 대해 말했다.

◆ 다른 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아

다른 학교 학생 예비군들의 사정도 우리학교와 많이 다르지 않다. 성대신문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교·강사의 공결 처리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한 대학주보에 의하면 경희대 경영대학 K교수가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 A씨에게 "쪽지시험을 아예 칠 수 없다"며 학업 상 불이익을 줘 학내 논란을 빚었다.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도엽 씨에 따르면 "학교에서 예비군 결석계를 발급해준다"며 "이를 받아주는 것은 전적으로 교수 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수업 내용을 듣지 못하는 문제는 수업 필기를 공유하거나 수업을 녹음하는 등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소수가 아닌 학생들이 매해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고 꾸준히 논란이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학교 측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전했다.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광민씨 또한 "공대 특성상 남학생이 많아 예비군 훈련 시 전공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므로 학과 자체에서 날짜를 정해 보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 내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태현씨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을 듣지 못한 것이 시험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며 시험 성적의 두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한편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권시현씨는 "하루의 수업 내용을 못 듣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따로 불편한 점은 없다"며 "수업 내용을 한 번 놓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실적 대안 마련의 어려움을 얘기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2019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19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18.9.27.(목) ~ 10.8.(월)	2018.11.12.(월) ~ 11.23.(금)
고사장 발표	10.10.(수) 15:00	11.28.(수) 15:00
면접전형	10.13(토) 10:00 예정	12. 1(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24.(수) 14:00	12.12.(수) 14:00
등록예치금 납부	10.29.(월) ~ 11.2.(금)	12.17.(월) ~ 12.21.(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5) 학력조회동의서 부(원본)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2) TOPIK(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 : 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졸업 가능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교수회관 10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산부의과 의사들의 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끊임없는 논쟁

8월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개정안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를 포함해 명시함으로써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8월 28일 "임신중절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지를 명문화했다"며 반발했다. 의사회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복지부의 낙태수술 의사 즉각 처벌권을 철회해주세요', '낙태 수술 중단 철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던 '임신중절'에 관한 논의가 다시금 불거진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들이 대립하고 있는 임신중절, 수술중단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복지부는 왜 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 했나

임신중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국민청원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35,37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처벌강화 위주 정책이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본래의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수술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이다"라며 "이번 해부터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정부에서도 임신중절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지난달에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처벌강화 위주 정책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개정안에서는 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재 낙태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도 논의 중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을 제한 없이 즉각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새로 발표된 개정안 이전의 의료관계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1개월의 자격정지를 처분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전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명시돼있지 않아 기준이 모호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세분화했다. 세분화 된 내용은 △진료 중 성범죄(12개월 자격정지)△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변질, 오염, 손상 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3개월 자격정지)△형법 제 270조를 위반해 낙태(1개월 자격정지)△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1개월 자격정지)이다. 개정안 발표 이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신중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구분돼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 21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즉 이번 개정안은 모호했던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정비 및 강화한 것일 뿐, 사실상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안으로 인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가 신고를 받으면 형사처분과 법원 판결 없이 즉각적으로 복지부 공무원이나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형법 위반 여부는 행정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다"며 "낙태죄로 의사를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거쳐 사법부 판단이 나와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발표된 개정안 시행조치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왜 모든 사회적 책임을 의사들에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맞대응

8월 28일 복지부의 개정안 발표에 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는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 규칙을 공표했다"며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임신중절수술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1개월 자격정지라는 처벌을 내린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앞서 언급한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로 임신중절 현행법 개정 요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규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가 발표한 성명문에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낙인찍었다"며 "현실을 무시하며 윤리적 의료를 강요하고 성취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및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발표됐다. 이영규 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담당 부처인 복지부 관리 하에 의료행위를 한다"며 "그런데 유독 임신중절수술에 대해선 그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로 개정안 시행이 보류된 상태지만 의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강경하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전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임신중절수술 거부는 개정안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을 미뤘을까? 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을 중단하면 여성들이 불법 임신중절 약을 복용하거나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인터넷에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절 약이 불법임에도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임신중절수술 중단이 이어지면 △복통△하혈△출혈△불완전 유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임신중절 약이 지금보다 고가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영규 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불법 임신중절수술 기승과 관련해 "여성들이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극히 일부인 병원으로 몰리거나 임신중절수술 중단 이후 급등한 고가의 수술비를 내고도 질 낮은 진료를 받고 있다"며 "심지어는 해외로 나가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복지부가 개정안을 발표하고 생긴 문제점들에 관해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법에 반영하지 못하기에 벌어지는 해프닝"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더 이상의 혼란은 그만, 법 개정은 어떻게 이뤄져야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임신중절 관련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2010년 추정 임신중절 건수는 약 169,000여 건으로 합법 건수는 10829건으로 약 6%에 그친다. 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수술 건수는 연간 100만 건을 넘어선다. 이렇듯 현행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임신중절수술 처벌을 강화하는 미봉책만으로는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할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간 혹은 준강간△근친상간△유전학적 질환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한 임신중절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은 과거에 머물며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기준 이외에도 무뇌아와 같이 생존이 불가능한 기형아가 있지만 임신중절수술 허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수술을 할 수 없다. 의사회는 이에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다"라며 "해당 임산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라고 전했다. 또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강간에 의한 임신임에도 여성은 가해자를 고소한 뒤 피해자임을 입증 받아야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가해자가 강간죄를 부인하는 등 소송이 길어지면 임신중절이 가능한 24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의사회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불법 임신중절 약과 수술에 대한 차단 및 처벌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김동석 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미프진과 같은 불법 임신중절 약이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임신중절 약에 대해 단속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신중절 약은 의사의 처방과 복용 이후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30개국에서 '사회적 · 경제적 적응 사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타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 결정권을 인정하면서 △프랑스는 12주 △스위스는 10주 △ 네덜란드와 영국은 24주까지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은 모체보호법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의사회는 "현재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현재를 고려한 임신중절수술에 관한 기준의 필요성을 표했다. 이에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임신중절이라는 민감한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이후에 처벌을 논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96yujin@hufs.co.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흡 소 사 이 어 티

"기억하다, 행동하다, 함께하다"라는 활동 모토로 활동하는 한국외대 학술 응용 분과 준동아리 평화나비는 △일본군 성노예제△평화△인권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기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평화나비 동아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격으로 부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현(국제지역·한국 17) 평화나비 회장을 만나봤다.

기자 : 평화나비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미현 : 고등학교 역사 수업 때 일제강점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무관심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온 후에도 문제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기에 이젠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마음에 시작한 것보다는 그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기자 : 동아리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미현 : 주 1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폭력, 전시 성폭력 주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교내에서는 문제 공론화를 위한 설문조사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며 교외에서는 다른 평화나비 지부와 함께 강연을 듣거나 포럼을 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2학기에는 기부 펀딩을 위한 아이템을 동아리 부원들과 직접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자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미현 : 이번 해 초반기에 우리학교 평화나비 팀원들과 경기평화나비 기부 마라톤 달리기 행사 서포터즈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아리 부원들과 행사에 쓰일 피켓이나 응원도구를 만들고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라톤에 와주신 수원 시민들과 다른 평화나비 지부와 함께 하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원동력과 자부심을 고취시킨 날이었습니다.

기자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미현 : 지난 여름방학, 수원역에서 다른 평화나비 지부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지나가시는 아저씨께서 "참 답답하다"며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땐 너무 당황해 그 분한테 반박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아직도 한이 됩니다.

기자 : 이 기사를 보고 있을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미현 : 안녕하세요. 우리학교 학생 여러분, 가끔씩 백년관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때 먼저 다가와 서명해주시고 응원 말씀 해주실 때마다 저희 동아리 부원들 모두 큰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외대에서 열릴 캠페인 참여 부탁드리며, 저희 동아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소득주도성장,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고수하며 수많은 관련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로제 도입△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역대 최대 편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지난 12일 발표된 고용지표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는 113만 3000명, 청년(15세~29세) 실업률은 10%에 이른다. 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로 외환위기의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과 비슷한 수치다. 계속되는 고용 악화로 인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지 우리학교 허준영 경제학부 교수에게 물었다.

허준영 우리학교 경제학부 교수

Q1.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엔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국내총생산(GDP)이 시간에 따라 증가했고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즉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비도 많아지며 삶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성장하고 GDP의 숫자 자체는 계속 좋아지는데, 국민들은 소득 분위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차이를 가시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필두로 성장해 온 나라이기에 GDP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회사들이 더 좋은 영업 실적을 내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기위해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하지만 현재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중·후반을 넘어오면서부터 경제는 성장하는데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져 경제학계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도 2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고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저소득층에겐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소수의 대기업 주도 성장이 아닌 최저임금 상승 혹은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소득주도성장 기조 하에 경제 정책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Q2. 소득주도성장 모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큰 정책 속 △최저임금 상승△혁신주도 성장△공정 경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기대 효과로는 최저 임금을 올림으로써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것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업의 수가 유지되면서 임금이 상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오히려 소득분배율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주도 성장은 사회의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한 회사를 지원해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공정 경제는 프랜차이즈들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 간의 경쟁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됩니다. 베이킹 파우더, 밀가루 등 재료들을 구해오는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가진 유통망을 통해 공급받는 프랜차이즈는 단가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와 1:1로 경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입니다. 위와 같이 잘못된 것, 불공정한 것을 정부가 해결하는 과정을 공정 경제라 부릅니다. 최근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과연 '대기업에 대한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에 대한 말이 나오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공정 경제에 대해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아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3.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에 의해 이러한 정책 기조가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 학계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제 학계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로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은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에 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변화를 주는 것보다 고소득층·중산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보장을 해주는 방법이 더 나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이들의 논거 중 하나가 최하위 소득층을 위해 하위소득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분들은 사업 규모상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데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실시하면 고용주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심해지며 미봉책으로 고용주가 일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고소득층이 아닌 분들에게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낮은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Q4. 고용지표가 2달째 하락세를 이어가자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각론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존에 시행되지 않았던 정책이므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기에 부작용들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이라도 부정적인 시각은 존재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은 후속 조치를 통해 최대한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통계지표에 따라 정부도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과 후속적인 정책 조치 등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계층 혹은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이며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Q5. 소득주도성장이 실행된 해외의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소득주도성장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줘 그들이 구매력을 갖고 소비를 해 경제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편에선 소득주도성장이 *포용적 성장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해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 질을 우선시하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성장하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많이 이뤄져 왔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선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시행했지만 그 속도가 한국처럼 빠르진 않았습니다. 이 국가들에선 임금주도성장 모델을 시행했었지만 이것은 대부분 다른 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 성장△소득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말한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외국어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외국어교육과정은 외국어 및 외국학 교육 전통에 실용성을 더한 국내 최고의 외국어 마스터 과정으로, 대학(원)생,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어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10주 야간회화과정, 방학특별과정, FLEX 어학시험 대비과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학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기관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을 설계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교육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18년 하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8.06. - 12.21.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01.16. - 01.31.
야간과정	20주 야간과정	2월, 8월	08.06. - 12.21.
	10주 야간회화과정	2월, 4월, 8월, 10월	10.15. - 12.21.
주말과정	10주 주말과정	2월, 8월	08.25. - 11.03.
	FLEX 대비과정	3월, 9월	11월 중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3월, 9월	09.01. - 12.15.

※과정별 상세일정 및 교육비는 홈페이지 참조(http://flttc.hufs.ac.kr)
※외대생(동문) 교육비 할인 제공 / 일부 과정에 한함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소개

교육특징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식 교육과정 제공
교육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이란어 외
강사진	언어별 전공학과 전임교수, 외국어연수평가원 전임 교강사
절차	상담 → 교육모듈 개발 → 입교 → 교육 진행 → 평가 및 피드백
교육특전	교육과정 외 특별프로그램 제공(지역학 특강, 주임교수 튜터링) 원어민(한국외대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무료 제공 외국어능력평가 제공 기숙사 시설 이용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어교육 상담 및 문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구분	연락처	이메일
주중 및 야간과정	02-2173-2515	flttc@hufs.ac.kr
주말과정	02-2173-2525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02-2173-2524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02-2173-2515,3518	edulif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FOREIGN LANGUAGE TRAINING & TESTING CENT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뒷담하는 기자
취재뒷이야기

초심

학보일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취재로 체력적인 소모도 많았고 기사를 쓰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었다. 하나의 기사를 쓰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랐다.

개강호 때, 나는 기삿거리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우리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과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을 찾아보기도 했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봤다. 그렇게 기사 주제를 찾게 되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기사의 △개요 작성△취재원 찾기△자료 수집 및 사실 여부 확인 등 하나의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중에서도 특히 취재처를 찾는 것이 힘들었다. 친구들에게 부탁해 보기도 하고 sns를 이용해 보기도 했지만 실명이 나오는 것이라 그런지 대부분이 거절했다. 이해는 됐지만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거절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다. 필요한 자료를 다 모으면 그때부터 나는 자료를 정리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순서에 맞게 기사를 작성한다. 인터뷰를 넣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믿고 인터뷰를 해 줬을 텐데 내가 기사를 쓰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와전이 될까봐 걱정됐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기사를 마무리했다. 내 나름대로 여러 번 생각하고 쓴 기사라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기사를 잘 쓴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오만이었다. 내 기사는 형식도 많이 틀렸고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 글이었다. 밤을 새 가며 10차의 수정을 거친 끝에 내 기사는 재탄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다음날 조판소에 가서 어떻게 기사를 실을 것인지 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의 기사가 완성 됐다.

조판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뿌듯함을 느끼기보다 그저 힘들기만 했다. 하지만 학보가 발행된 날, 학교에 비치된 학보를 봤을 때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 사진과 글이 학보 커버스토리에 인쇄돼 있었고 그 기사 옆에는 내 이름 석 자가 박혀 있었다. 그것을 봤을 때 나는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 이번의 경험을 통해 나는 더 잘하고 싶은 욕심과 더 부지런히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 기사를 쓰고 마감을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겠지만 그때마다 이번에 느꼈던 감정을 되새겨봐야겠다.

안소현 기자

문화칼럼 [문학 겉핥기]

톰 아저씨의 오두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노예제가 있던 시절 남부 백인의 입장을 대변한 소설이었다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흑인 노예들의 삶을 다룬 이야기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 소설의 주인공은 톰이라는 흑인 노예다. 그는 정직하고 신앙이 깊으며 성실한 인물로 묘사된다. 톰과 상반되는 성격의 악덕 주인의 모습은 흑인 노예들의 처절한 상황을 극대화했다. 톰 아저씨는 노예로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엔 주인에게 맞아 죽게 된다. 소설은 그 당시의 문화와 흑인들의 삶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당시의 흑인노예들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 채 열악한 삶을 살았다. 작중에서 톰의 주인은 세 번 바뀐다. 첫 번째 주인 밑에서 일할 때 톰에게는 클로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하지만 주인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자 톰은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고 톰은 아내와 자식들을 죽을 때까지 만날 수 없었다. 톰 뿐만 아니라 많은 노예들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노예시장에 부모와 자식이 같이 팔려 나오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들이 같은 곳에 팔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노예의 가격이 비쌌기에 가족단위로 팔려가는 것은 흔치 않았다. 톰의 마지막 주인이자 톰을 죽게 만든 세 번째 주인은 노예들에게 가혹했다. 그는 톰을 감독노예로 삼으려고 했으나 톰이 이를 거절하자 톰을 미워하고 학대했다. 결국 그는 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주인이 노예를 죽이는 것은 위법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들을 죽인 백인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백인들은 노예들의 죽음을 단지 '재정적 손실'로 밖에 여기지 않았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악덕 백인 노예주를 떠올리지만 이 소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주인을 제외한 톰의 나머지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호의적이었으며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 준다. 톰의 첫 번째 주인인 셸비 부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신앙심이 있는 인물이며 노예들을 인간적으로 대한다. 이들의 아들 조지 역시 노예들에게 동정심을 느꼈고 그중에서도 특히 톰을 굉장히 좋아했다. 조지는 시간이 날 때 톰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지자 셸비 부부는 톰을 팔게 되고 세인트클레어 가족이 톰의 새 주인이 된다. 그들은 톰을 신뢰해 마부로 일하게 해주고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주인이 안타깝게도 싸움에 휘말려 죽게 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톰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팔려갔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노예제가 있던 시절 노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설로 노예들이 겪어야 했던 학대와 설움을 담고 있다. 미국의 노예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설을 추천한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작은 숲을 찾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리틀 포레스트>는 '힐링 영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준 영화였다. 흔한 로맨스도 없었고 함정도 없었다. 영화는 그저 주인공 혜원의 일상이다. 천천히 정성을 다해 음식을 해먹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으며 농사를 지으며 사계절을 보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장면들과 아름다운 시골 전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영화 안에서 혜원의 모습은 처음과 끝이 확연히 달랐다. 하지만 그 변화가 놀랍지 않았다.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내가 혜원이었기에 그만큼 자연스러웠다.

혜원은 임용고시 시험에서 떨어진 후 심란한 마음을 다잡고 엄마와의 추억이 깃든 시골 동네로 돌아왔다. 어떻게 돌아왔냐는 친구 은숙의 말에 혜원은 "배고파서 돌아왔어"라고 무심히 대답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쓰러지듯이 자고... 그 사이에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는 혜원의 모습은 우리네 모습 같았다. 이 시대 청춘들은 쫓기듯 한 삶을 살고 있다. 잠시라도 쉬고 있으면 불안해진다. 우리는 모두 쉴 틈 없이 △학점관리△자격증 취득△대외활동 등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들을 충족시키려 충실히 움직인다.

하지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사회는 쫓기듯 사는 이들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 칭한다. 이에 반박하듯 혜원은 "나만의 '작은 숲'을 만들어야겠어!"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는 무엇이 작은 숲인지 정의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 후렴구에서 혜원의 웃는 모습을 보면 '작은 숲'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만 같다. '작은 숲'은 바로 그대들의 일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닐까?

영화 속의 혜원을 보며 부러워졌다. 과연 내가 혜원의 상황이었더라도 모든 것을 제쳐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한편으로 혜원의 시골 동네를 보며 나 또한 옛 동네 여수가 생각났다. △호수 같은 바다△우거진 숲△옛사람들까지... 그것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나의 작은 숲'을 찾을 수 있을까. 영화를 보며 당장은 도망갈 용기가 나지 않지만 이번 학기가 끝나면 여수를 찾아가 보려 한다. 잠시 여수로 돌아가 조용히 치열했던 지난날들을 뿌듯해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나의 23살이 저물기 전에 '작은 숲'을 찾을 수 있길 바래본다.

윤아영 기자 97yyuna0@hufs.ac.kr

아직은 미숙한 우리학교의 운영 체제

이수빈(아시아 · 태국어 17)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외대학보 1022호는 △캠퍼스 간 장학금 불균형△통학버스 운영의 문제점△스마트 도서관의 증개축에 따른 임시도서관 운영의 한계 등의 교내 사안들을 다뤘다. 또한 학보는 일방적 채용 취소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교외 사안 또한 게시했다.

3면에서 다룬 '캠퍼스 간 장학금 불균형'의 기사는 구성이 훌륭하다고 느꼈다. 우선 각 캠퍼스의 특별 장학금에 대한 비교를 제시해 각 캠퍼스가 가진 장학금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이것은 장학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줬다. 또한 교내 장학금에 대한 학생과 학교 측의 입장을 제시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장학 제도의 한계와 의문점을 어느 정도 해소해준다. 기사는 타 학교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우리학교 장학금의 현 위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마무리했다. 4면의 '글로벌 캠퍼스 통학버스의 문제'라는 기사는 객관적 지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신문의 역할인 사실적 정보 전달과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타 학교의 사례를 제시해 향후 우리학교가 통학버스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6면과 7면의 '서울캠퍼스 중앙 도서관, 39년 만에 똑똑한 꽃단장 준비중' 기사는 중앙 도서관 증개축에 따른 임시도서관과 스마트 도서관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임시도서관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사는 임시도서관의 한계점에 대한 부정적 시선뿐만 아니라 한계점은 감수해야 할 불편이라는 의견 또한 기사에 반영함으로써 중립적 위치에서 정보를 전달하려 했다. 이후로도 임시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우리학교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분들 모두 힘들었던 일들은 잠시 잊어두고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외대학보에서 더 좋은 기사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학교의 와치독(WatchDog)으로서 주변을 좀 더 경계해야 할 때

표승수(경상 · 국제금융 14)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1022호는 긴 방학을 지나 방학동안 큰 이슈가 됐던 △글로벌 캠퍼스의 통학버스 문제△스마트 도서관 설립△캠퍼스 간 장학금 불균형에 관해 다룬다. 세 가지 주제는 방학 동안 큰 쟁점이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잘 선정됐다고 본다.

필자도 외대학보를 통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다. 첫 번째로 4면 도입부에서 글로벌 캠퍼스를 드나드는 4대의 버스가 모두 배차간격이 25분 정도라고 했지만, 실제 1500-2번 버스의 배차간격은 10분 정도로 배차간격이 그리 길지 않다. 학생들이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과 다른 정보제공은 논의의 필요성, 기사 작성의 당위성을 끌어내려는 인위적인 노력이라는 느낌을 준다. 좀 더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투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표에는 노선과 요금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적합하지 않거나와 담고 있는 정보에 비해 너무 큰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노선문제,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정리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타학교의 사례에서 순천향대학교의 '통학버스 예약 시스템'이라는 해결방안을 소개함으로써 언론의 순기능을 행했다. 다만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예시는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캠퍼스 간 장학금 불균형에 관한 기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온 캠퍼스 간 장학금 불균형에 대한 오해를 밝힌다. 많은 학생들이 이 기사를 통해 특별 장학금 정책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학교 측에 이런 오해의 존재를 전달함으로써 학교 측으로부터 행동을 끌어낸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여기서도 자료가 아쉬웠는데, 캠퍼스 간 장학금 지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가 아닌, 대학별 교내 장학금 순위를 매긴 표는 기사의 큰 맥락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세 번째로 글의 제목은 "똑똑한 꽃단장 준비중"이지만 정작 글의 내용은 임시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도면들△사물함 · 정리된 책의 사진들△임시도서관 이용안내에 대한 공고문은 분량을 위해 게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심지어 사진을 통해 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할 수 없다. 글이 좀 더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늘렸으면 하는 부분△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외관 사진△임시도서관의 열람실 부족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진을 게재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보도 엄연한 언론기관이다. 이미 수면 위에 떠오른 주제들 말고도 학생들이 미처 알지 못하나 알아야만 하는 주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면 분명 더 멋진 외대 학보가 될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도 발전하는 외대학보를 응원한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깊어지는 가을, 주위를 둘러봐야 할 때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바쁘다. 고향은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혹자는 고향을 마음이 쉴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이라 말한다. 태어난 나라를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삶을 꾸리는 사람들,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난민에게 고향이란 어떤 의미일까.

추석을 맞아 외국인 재학생을 위한 대학 차원의 문화 행사가 열렸다. 지난달 19일 광운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2018년 추석맞이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1일 경상대 또한 '2018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추석행사'를 개최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긴 연휴기간 동안 가족을 만나러 고향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추석을 맞아 귀국길에 오른 한 필리핀 근로자는 김해공항으로 가기 위해 찾은 부산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족들에게 줄 목돈을 잃어버렸다가 경찰관의 도움으로 되찾았다.

한편 지난 15일 스페인 해양구조대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엔진이 고장 나 표류하다 선체가 반쯤 물에 잠긴 난민선에서 난민 6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스페인으로 향하는 난민 약 1500명은 지중해를 건너다 숨졌다. 또한 지난 17일 태국 매라온 난민캠프에 거주하던 2세 여아가 산사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호세프 보렐 스페인 외무장관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출신 난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장벽을 쌓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우리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2015년 1042명에서 지난해 227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우리학교의 국제화 지표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외대학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대' 다웠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문했고 다양한 외국어 학과들이 일궈낸 세계민속축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처럼 화목한 분위기 밖에서 비극은 여전히 존재했다. 모두 풍요로운 국경 너머에 비애에 젖어있을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우리네 세계시민의식이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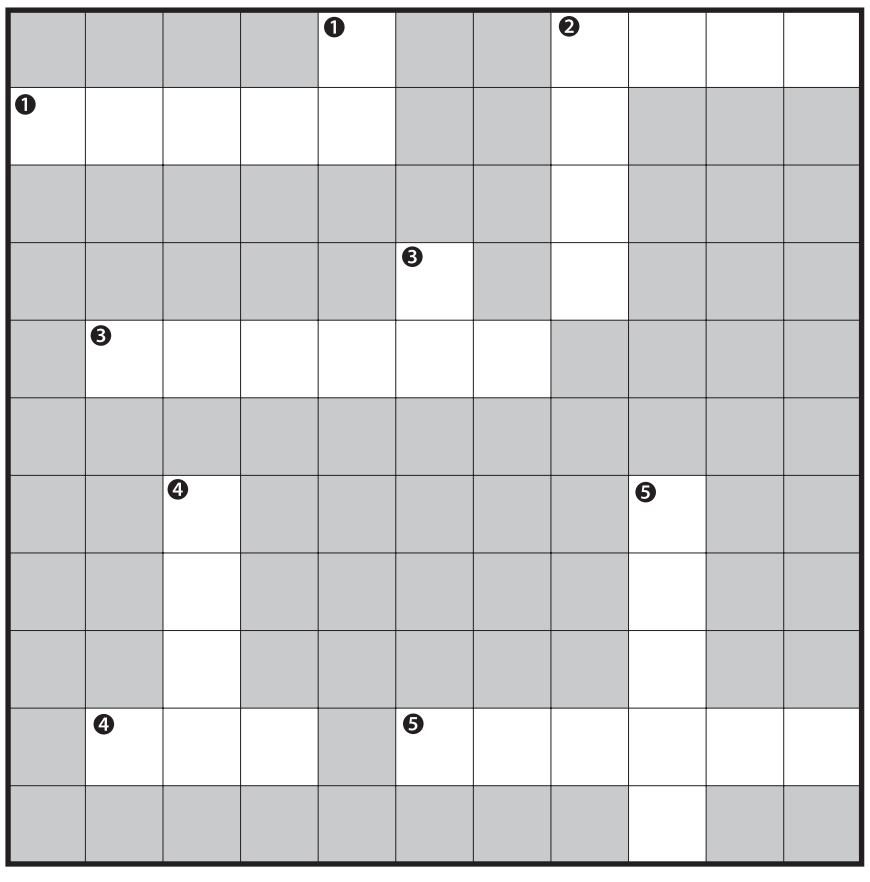
우리들의 맛집이야기

우리학교 봉샌드를 소개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간단히 앉아서 얘기하기 좋은 장소! 음식점인 듯 카페 같은 그 곳 여러분들도 한 번 와보면 어떨까요?

맛집 기사제보 정동민 편집장 010-2267-2192, 95won01000@hufs.ac.kr
선정된 독자에게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십자말풀이



가로
1.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 개편 내용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2면 참조)
2. 홍석현 ○○○○ 회장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 방문했다. (2면 참조)
3. 이번 인물면에서는 ○○○○○○인 이희수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12면 참조)
4. 우리학교 남학생들은 ○○○훈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업에 빠져 학교 커뮤니티에 종종 수업 자료를 구하는 글이 게시된다. (7면 참조)
5.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기조를 고수하며 많은 정책들을 시행했다. (9면 참조)

세로
1. 세계민속문화축전(세민전)은 글로벌캠퍼스 ○○의 이름이다. (4면 참조)
2. 보건복지부의 의료행위 행정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중절 수술 ○○을 선언했다. (8면 참조)
3.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과와 수업에 따라 달라지는 폐강의 기준에 ○○을 갖고 있다. (3면 참조)
4. 이번 홉소사이어티에서는 우리학교 학술 응용 분과 준동아리 ○○○○를 다뤘다. (8면 참조)
5. 인도네시아 대통령 ○○○○○가 우리학교에 방문했다. (1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설

종전선언과 그 이후 전개될 역사에 필요한 지혜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우리나라는 드디어 일본 하의 식민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1948년 남북이 나뉘어 별도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두 개의 국가를 수립하게 됐다. 그리고 남북이 1950년 다시 살을 깎는 전쟁의 소용돌이와 휴전이라는 아주 슬픈 현대사를 겪게 되었다. 2018년 드디어 남북 사이에 그리고 어쩌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연내 '종전선언'을 기대하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지나치게 앞선 궁금함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종전선언 이후 우리나라가 친미국가로 남을 것인가, 친중국가로 나아갈 것인가가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친미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뤄 왔다.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로 친미국가 전략으로 미국의 안보 보호망 아래서 안보를 보장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친미국가로서의 폐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친미국가였기에 생긴 폐해도 적지 않았다는 견해도 상당히 공개돼 있다.

중국에 있는 여러 곳의 박물관에는 수많은 지도들이 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박물관에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어느 특정 시대에 미친 중원 국가의 영향력 내지는 지배력을 나타내는 지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지도들은 한반도 일부 혹은 한반도 전부를 중원 중심의 국가의 색깔과 같은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독도나 대마도 관련한 일본과의 외교적 신경전을 고려해볼 때, 우리에게는 놀랍고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지도들이다. 현재의 중국은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중원을 중심으로 했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거나 한반도 내에 있던 국가들 가운데 가야나 삼국시대의 신라보다는 큰 영토를 확보하고 있지만 작은 나라다. 동아시아에서 진시황 이전부터 중원을 차지하면서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대동사회 건설이 그들의 정치적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부침의 역사가 바로 중원의 역사다. 강력한 제국이 중원을 차지하고 세력을 확장할 때, 한반도를 주 무대로 했던 국가들은 존망의 위기에 처하거나 쪼그라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은 거대한 통일국가를 만들었고, 현재는 강력한 제국국가에 비견되는 거대한 공산당 일당 체제의 국가로서 현대판 제국국가 체제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북쪽은 소비에트연방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지와 지원을 받고, 남쪽은 미합중국과 유엔의 지원을 받으며, 우리는 1950년도에 발발한 한국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1953년의 휴전 이후 휴전 상태로 65년을 지내왔다. 2018년 남북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화해 무드와 종전선언을 행해 달려가는 남북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끝내는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렇지만 그 뒤에 펼쳐질 남북의 운명은 그저 장밋빛이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혜를 모아 사람들이 행복하고 국가가 번영하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우리는 동아시아에 있는 고인돌 분포도와 비파형청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의 지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를 통해 이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현재와 미래는 과거와 연결돼 있고, 과거가 걸어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미래의 방향을 지혜롭게 밝혀가야 하는 것이다. 국방과 외교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지혜를 키울 문화와 학문이 더욱 요청되는 시대다.

미투 첫 실형,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선고를 받았다. 또한 극단번작이 조증윤 대표도 미성년자 단원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0일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선고를 받았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약 8개월 만에 실형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항간에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며 사회를 좀먹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윤택 감독과 조증윤 감독의 실형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무고에 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미투운동을 통해 발전하기 위해선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는 지양해야 한다. 그 사례로 박진성 시인은 2016년 10월 19일, 21일에 올라온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로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혔다. 그 후 출판사는 출판된 시집을 판매하지 않았다. 또한 시집, 산문집 등 출간 예정이 있었지만 출판할 수 없게 됐다, 그를 죄인으로만 몰아갔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허위로 고소한 여성은 각각 벌금형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살시도를 할 만큼 피폐해졌다. 갖고 있던 명예는 땅으로 추락했고, 출판이 되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결과치고 형편없다.

현재 성범죄에서 무고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렇기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 미디어에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하며, 사실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 변질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정동민 010-2267-2192 95won01000@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정동민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사막과 모래의 땅, 중동 문화의 전문가 이희수 교수

이슬람 세계는 어쩌면 우리에겐 유럽보다도 머나먼 곳이다. 알려지지 않은 땅 중동. 중동과 이슬람 문화의 전문가인 이희수 교수(아언문 · 터키어 75)를 만나봤다. 이희수 교수는 중동지역 대학원을 졸업하고 터키의 이스탄불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으며 △터키△사우디아라비아△튀니지△이집트△이란 등지에서 10년 이상 공부하며 중동지역의 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또 이슬람 문화권의 전문가로서 한국 중동학회와 한국 이슬람 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양대 특훈 교수와 성공회대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기회에 그가 중동지역 전문가로 거듭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Q1. 우리학교 터키어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중학교 시절부터 이스탄불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고대문명이 집중돼 있는 곳으로, 오래 전 읽었던 호메로스의 '트로이 전쟁' 의 무대이자 마이다스 왕이 황금을 선택했던 그곳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고교시절 삼수를 한 후 우리학교에 진학했는데, 학과를 선택하던 중 어릴 적 동경의 대상이었던 중동세계를 떠올렸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주저 없이 터키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남들이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고, 자소서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저는 터키와 이슬람 문화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Q2. 터키 이스탄불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는데, 왜 많은 과목 중 역사학을 선택하셨나요?

터키는 인류문명과 역사의 본향입니다. 그곳엔 수많은 사료와 역사적인 기록들이 보존돼 있습니다. 이를 공부하고 읽어내기 위해선 역사학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를 선택했습니다. 또 12000년 전 신전도시 괴벡리테페(Göbekli Tepe)와 1만 년 전 도시 차탈회육(Çatal Höyük)에서 출발해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 상류에서 발아한 수많은 문명의 토대 위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중동 지역엔 찬란한 이슬람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과정과 문명의 맥락을 역사라는 창을 통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1453년에 설립된 이스탄불 대학은 550년의 역사를 가진 인문연구의 중심 대학으로 어마어마한 필사본과 무궁무진한 역사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대학에 진학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3. 우리에게 이슬람 문화는 조금 낯섭니다. 이슬람 문화를 간략히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이슬람 문화는 57개국 17억 인구가 포함된 지구촌 최대 단일 문화권입니다. 평등과 복종이라는 두 이념 축을 중심으로 공동체 정신과 가족애를 바탕으로 절대자에 다가가는 헌신적인 종교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이 천년간 암흑의 질곡을 헤매고 있을 때,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의 △학문△과학△예술을 꽃피웠던 문화이기도 하죠. 다만 20세기 후반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 이슬람 문화권과 대립하며 이슬람포비아가 극심해졌습니다. 여기에 순응하지 않은 일부 극단적인 무슬림 집단들이 폭력 사태나 테러를 저질러 지구촌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는 분명 반이슬람적 행태이고 이슬람 세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왜곡과 괴담이 우리사회에 너무 무성하지만 이슬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며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종교가 어떻게 1400년 동안이나 17억 명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며 성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Q4. 중동에 머무르는 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무엇이었나요?

중동에 머무르는 동안 대학원생 신분으로 가다피(Muammar Gaddafi) 리비아 지도자를 두 번이나 만났던 것과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 통역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유학시절 터키에서 친하게 어울리던 압둘라 귤(Abdullah Gul)과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친구들이 차례로 터키 대통령이 된 것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또 1979년 메카 총격사건* 때 현장에서 공포에 떨면서 취재했던 일이나, 튀니지의 사막 드가 지역에서 아랍문화를 온 몸으로 체득한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메카총격 사건: 1979년 11월 20일 메카가 무장세력에 의해 점령당한 사건.

Q5. 최근 아랍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입지가 우리나라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중동 국가들과 어떤 교류를 맺고 있나요?

우리나라와 중동국가들의 교류는 약 15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라와 아랍-페르시아 간에 긴밀한 교역이 이뤄졌었고, 최근엔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에 와서 삼국통일에 공헌하고 신라공주와 결혼해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의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 "쿠쉬나메"가 발굴돼 학계가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지역은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건설-플랜트의 약 70%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시장입니다. 또한 드라마 "대장금" 평균 시청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한류가 몰아치면서 우리나라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효자 시장이기도 합니다.

Q6. 앞으로의 목표가 있나요?

우리사회에서 비교적 소외되고 오해와 편견이 심한 중동-이슬람권 문화와 진정한 의미를 보다 올바르게 연구하고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가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적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공자로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회대 이슬람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슬람 문화 시리즈 100선을 집필해 출간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Q7. 중동지역의 전문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분야나 전공만 좇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분명하고,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다고 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쟁으로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를 찾아 공부하고 준비 한다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틀림없이 빛나는 결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중동-이슬람권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수입의 대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1/4을 차지하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전문가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슬람 문화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중앙-유라시아△동남아시아 지역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언어 뿐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인문학적 연구와 정확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9학년도 전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9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18. 10. 1(월) ~ 10. 8(월)	10.27(토) 10:00	11.8(목) 14:00	11.12(월)~11.16(금)
일반전형	2018. 11. 5(월) ~ 11. 9(금)	12.1(토) 10:00	12.13(목) 14:00	12.17(월)~12.21(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4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라.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